

세방리튬배터리, 광주에 1150억 공장 본격적인 공사

평동2차 산단에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착공...6월 준공

첨단 설비 내년 3월부터 가동...연간 42만대 모듈 생산

평동2차 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기공식에 이상용 세방그룹 회장, 차주호 세방리튬배터리 대표이사, 이용섭 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양향자 국회의원, 정준보 신영건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방리튬배터리는 자동차 빌트인카메라의 보조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모듈 제작 분야에 신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1월6일 광주시와 1150억 원을 투자해 평동2차산단 내 2만9000㎡ 부지에 연면적 3만3000㎡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팩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올해 첫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광주시

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실무자가 이뤄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은 오는 6월까지 준공해 시험운동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연간 42만대의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게 되며, 본격 운영되면 일자리 250개가 창출된다.

특히 이번에 건립되는 공장은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의 셀을 모듈화하고 패키징하는 공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최첨단 자동화설비로 구축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조립공장으로 운영된다. 회사 측은 이번에 신설하는 광주공장을 해외시장 수

출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꾸려 수차례 세방리튬배터리와 접촉하며 토지 매입, 공장 착공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투자유치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공장 건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공장이 들어서는 평동2차산단과 인접한 빛그린산단에 오는 7월 친환경차부품인증센터를 준공하고, 광주형 일자리 공장인 글로벌 모터스도 향후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친환경자동차 메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투자결정에 이어 기공식까지 신속하게 진행해준 세방그룹의 과감한 도전과 경영진의 혁신적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세방리튬배터리가 광주공장을 기반으



올해 광주시와 첫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세방리튬배터리(주)가 2일 오후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로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기업으로 성장·발전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

최이슬기자

'코로나 여파' 광주·전남 1월 물가도 '신선식품 강세'

전월 대비 0.8%·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나면서 신선식품부문 상승세는 지속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1(2015년=100)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채감불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7.76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0.0%)를 보였다.

공업제품과 서비스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0.7%하락·보합세를 보인 반면, 신선식품은 전월 대비 5.9% 전년 동월 대비 15.1%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분야별 신선식품 지수는 신선과실류 33.9%, 신선어개류 7.5%, 신선채소류 1.3% 순으로 높았다.

분야별 소비 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8.3%), 기타상품·서비스(1.7%), 음식·숙박(1.3%), 의류·신발(1.0%) 부문은 상승했다. 반면 교육(-4.6%), 교통(-3.4%), 통신

(-1.3%), 주택·수도·전기·연료(-1.0%) 부문은 하락했고, 주류·담배 부문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남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99(2015년=100)로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7.34로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전남지역도 전년 동월 대비 공업제품은 1.0% 하락했지만 신선식품 지수는 7.3% 상승했다.

분야별로 신선과실류 18.6%, 신선채소류 3.1%, 신선어개류는 1.2%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분야별 소비 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5.9%), 기타 상품·서비스(1.8%), 음식·숙박(1.6%),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 보건(0.7%) 부문은 상승했다.

반면 교통(-2.5%), 통신(-1.3%), 교육(-1.3%), 주택·수도·전기·연료(-1.0%) 부문은 하락했고, 주류·담배(0.0%) 부문은 변동이 없었다.

"방역수칙 잘 지키는 안심식당, 카카오프로 찾으세요"

오늘부터 카카오프로·다음서 서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안심식당을 카카오프로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카카오프로 및 다음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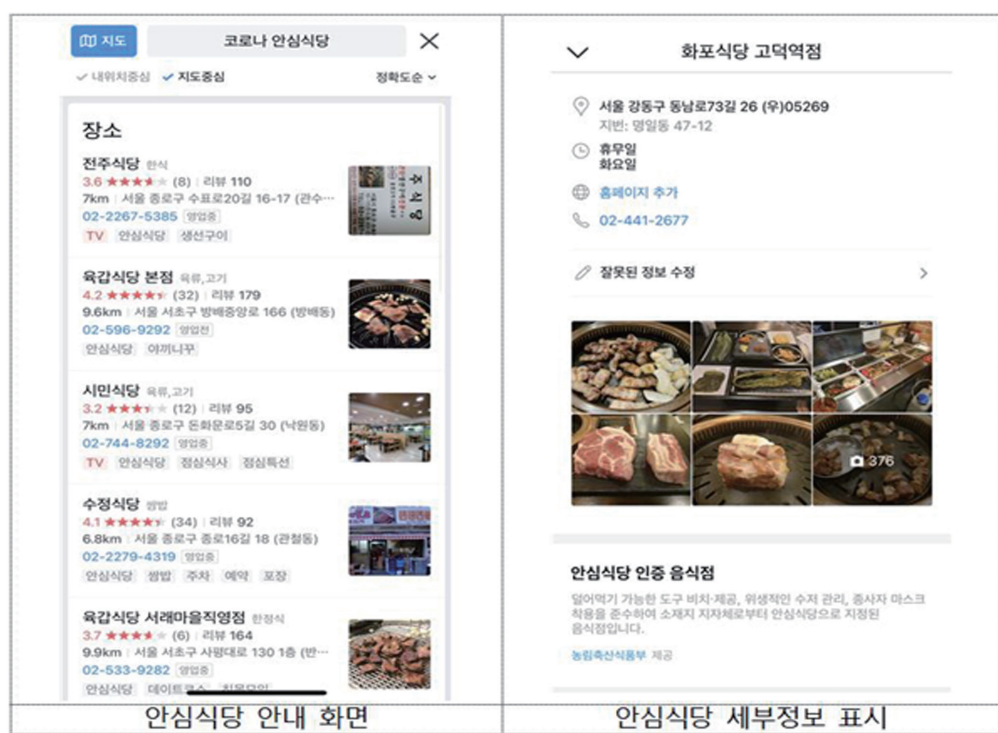
카카오프로 또는 다음 검색 창에서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 안심식당'으로 검색 시 지자체로부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 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입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지자체별 추가 요건 이행을 확인해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2만3467곳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됐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프로·다음서 제공하는 기본정보에 농식품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안심식당 공공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



영된다. 안심식당 지정 현황은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카카오프로 등을 통해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심식당

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 경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경기자

수협 "설 명절, 수산물 선물로 어업인 응원하세요"

수산물 구입 SNS 이벤트 실시...수산물 소비 촉진

수협중앙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한 달간 SNS에서 '설 명절 수산물 선물 보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는 수산물 선물세트 구입 후 실물이나 영수증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면 어업인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게시하면 된다.

이달 중 네이버 블로그 '다수협' 이벤트 게시판에 인증 댓글을 단 100명을 선정해 인당 1만5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수협은 선물가액 상향 결정이 수산물 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SNS 이벤트 외에도 유튜브 채널에 수산물 선물 관련 컨텐츠를 게시하고, 오는 15일까지 지역 온라인 쇼핑몰 수협쇼핑을 통해 수산물 선물세트 할인전을 진행한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신세계백화점 수협 매장 방문해 수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경기자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

1월 신용대출 가수요 폭발

연말 추축했던 신용대출 증가세 전환

전체 가계대출, 674조...4조2198억원 ↑

시중은행의 한시적인 신용대출 육취가 조치가 풀리자 올해 들어 신용대출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한도 축소 등 추가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역년말 대출 수요가 폭발한 데다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예고된 탓도 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2400원으로 전월 대비 1조5918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요구에 은행들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신용대출 조기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 444억원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한 모습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월 잔액 133조6925억원도 훌쩍 넘어섰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자 이에 따른 가수요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에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니까 주식투자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3월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 가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74조3737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2198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증가 규모(3조1824억원)보다 1조 원 가량 더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3개월간 470조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476조367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83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4조원대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지만 당국이 의도한 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지는 않는 모양새다. 신용대출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마이너스통장은 고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신규 개설이 제한되고 5000만원까지 반도막았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신용대출을 더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 집값을 보면 (지금 한도로는) 전세를 구하기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빚내서

투자(빚투)가 아니라면 원래 신용대출 용도대로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들은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한도 조절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부터 직장인 대상 우량 신용대출상품인 '솔직한 직장인대출S', '엘리트론' 한도를 최대 1억5000만~2억원에서 1억~1억5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오는 3일부터는 '솔(SOL)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우리 주거레 직장인대출' 등 주요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적용 대상은 신규 고객이나 한도를 증액하려는 경우로 이미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둔 고객은 대상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Sh수협은행은 지난달 22일부터 'Sh더드림신용대출' 중 종합통장(마이너스) 대출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같은 날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8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인상했다. 다만 최고한도는 각각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기준 국내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자 산투자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특별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도 지난해 하루 아침에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봐서 학습 효과가 생긴 것"이라며 "마이너스통장은 원금 분할상환에 포함 안 된다고 하고 한도가 축소될 것 같으니 일단 받아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